

외국어 습득과 학습모형

정 동 빈
(중앙대학교)

I. 서 론

인간은 누구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구사 할 수 있다. 어린이가 태어난 환경은 모국어 습득을 위한 온상이 된다. 어린이는 언어를 습득 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는 환경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모국어는 영어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된다. 만약, 어린이가 이중언어 환경에서 태어난다면 그 어린이는 이중 언어자가 된다. 또한 인간이 단일 언어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교육을 받고 외국어를 터득 할 수 있다. 응용언어학자들은 외국어 습득과 학습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응용언어학자들의 외국어 습득과 학습에 관한 이론을 고찰해 보고, 그 이론과 실험적 자료를 기초로 인간의 외국어 습득 및 학습 과정을 모형화하여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외국어 습득론과 학습 이론

1. 습득론과 학습론의 차이

Krashen (1978)은 외국어 '습득론'과 '학습론'을 구분하여 성인의 외국어 터득 과정과 외국어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성인의 외국어 '습득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성인이 어린이의 모국어 발달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외국어를 터득하는 것을 Krashen은 언어

‘습득’이라고 했다. 따라서, 어린이의 언어 습득처럼 성인은 잠재적인 언어 터득 과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외국어를 습득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언어 습득자는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사 소통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도 외국어 습득할 때나 후에 외국어 규칙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대상 언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대상 언어에 대한 분명한 문법적 직관을 가질 수 있다. 외국어 습득자가 만약 대상언어를 대할때, 그것이 문법에 맞는 문장인지 아닌지 판단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언어 습득론의 특징이 된다. 모국어 습득자의 경우 그의 모국어 대한 직관은 당연한 능력이다. 모국어 화청자의 경우, 모국어가 구문상 비문인지 혹은 의미상 비문인지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은 꼭 조직적인 학교 교육없이도 이루어지고 있다. 사춘기전에 모국어 습득자는 모국어를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자연스럽게 익힌다. 아무런 고충이나 장애를 겪지 아니하고, 복잡한 언어 조직을 터득한다. 다시 말해서, 외국어 습득론은 사춘기 전의 어린이들이 제 2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의미한다. Jeong(1981, 1985)은 한국 어린이의 제 2 언어(영어) 습득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어 습득론 존재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 한국 어린이는 자연 환경에서의 의사 소통 과정을 통해 서로 대화 작용을 경험하고, 그런 이중 환경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제 2 언어환경에서 생활하므로써 제 2 언어를 모국어처럼 아무런 장애없이 습득하고 있었다. 그 어린이의 영어 습득 과정은 단순히 어떤 언어학적 규칙 체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보다 의사전달에만 역점을 두고 있었다. Jeong에 의하면, 어떤 조직적인 언어 교정이나 모방 따위는 그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 별 효과를 주지 못하였으나, 이웃 친구, 유치원 급우, 부모들은 그 어린이의 영어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Krashen(1978)에 의하면, 성인의 외국어 습득의 또 다른 방법은 언어 “학습”에 의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학습이란 의식적인 지식 습득 과정을 뜻하고 있다. 언어에 있어서 의식적인 지식 습득 과정이란 학습자가 대상 언어의 문법을 의식하면서 대상언어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언어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 학습이란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대상언어의 문법 규칙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문법 지식은

조직적인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이 정식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국어에 숙달되고 있다면, 그는 외국어 학습자이다. 학습자는 규칙을 암기하고 그 규칙을 적용하며 그 규칙의 실제 활용 및 응용을 경험한 후 언어 지식으로 정착시킨다고 생각한다.

Krashen(1978)은 학습자란 오류 교정, 즉 **feed back** 을 통해서 의식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오류교정에는 외재적 교정과 내재적 교정이 있으며, 자체 감시 장치(**monitor**)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고 한다. 성인 학습자가 대상 언어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발성 전에 혹은 발성 후에 교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교정은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자가 '화자'로서 발성기관을 통해 대상 언어의 음운, 조직 단어, 혹은 문장을 발음하면서, 동시에 학습자 자신이 '청자'가 되어 청각 기관과 두뇌 기관을 통해 그 대상언어를 들은 후, 자신의 발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이런 과정은 내재적 교정이 된다. 교사가 '청자'로서 학습자의 발음을 듣고, 그 학습자의 대상 언어의 발음을 교정해 준다면, 이런 과정은 외재적 교정이 된다.

Krashen(1978)은 학습자가 자체감시장치(**monitor**)를 하나의 교정기로써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교정기는 문법적인 문장을 구사하거나 발음을 교정할 때, 또는 형성된 문장을 교정할 때 사용한다고 한다. 학습자가 감시장치를 신속하게 이용하지 못하면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숙달되지 못한 외국어 화자는 감시장치를 많이 이용 할 것이고, 따라서 외국어 구사시 더듬거리게 될 것이다. 학습자가 항상 감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용한다. 첫째, 학습자는 감시장치를 사용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아야 한다. McCroskey(1973)의 연구가 이런 Krashen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McCroskey 는 청각 결합 검사(**auditory fusion test**)를 실시 한 후, 언어사고를 위해, 3세의 어린이인 경우 약 20~23 m sec 의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고, 20세의 성인인 경우 약 4 m sec 의 시간적 간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cCrosky 의 연구 결과는 청자가 청각 청취 후 사고 과정을 통해 오류 교정이 이루어질 때 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McCroskey 는 그런 오류 과정의 시간이 나이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3세와 65세의 경우 긴 시간이 필요하며, 3세 부터 20세 까지 계속 시간이 단축되어 짧은 시간내에 오류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어 화자는 언어의 문법형태에 초

점을 두고 교정 할 수 있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학습자는 감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법 규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식적인 학습에 의해 형성된 외국어 능력을 학습자 자신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잠재 의식적인 지식으로 전이시킬 수 있을 때, 의식적인 학습이 잠재 의식적인 습득으로 된다.

언어 습득론과 학습론의 구분은 어떤 근거로 부터 유래된 것일까? Long (1980)에 의하면, 오류교정은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습득자에게 바람직한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증거는 Brown, Cazden과 Bellugi(1973)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오류 교정은 어린이의 ‘언어습득 과정’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언어 습득론’은 이중 언어 환경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어린이의 습득 특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른 한편, ‘언어 학습론’은 모국어 환경에서 학습자가 외국어를 훈련하는 과정에서의 특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McLaughlin(1978), Felix(1981)와 Els, et al. (1984) 등은 ‘학습론’과 ‘습득론’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고 Krashen(1978)을 비평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중언어 환경에서나 모국어 환경에서나 정식학교 교육 환경에서 외국어 학습자들 사이의 언어 터득에 유사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Krashen의 습득론과 학습론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비평하고 있다. 그러므로 Els, et al.(1984)은 외국어 학습과정의 ‘언어 구조및 습득 절차’와 ‘속도 및 성공도’ 사이를 구분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주장한다. ‘언어 구조 및 습득 절차’는 외국어 환경이든 모국어 환경이든 거의 동일한 형태로 터득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인식사고 활동과 사회 요인과 개별적 학습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는 외국어 터득의 속도 및 성공도가 각각 다르다고 주장 한다. 어쨌든, Krashen의 언어 습득론과 학습론의 구분은 외국어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응용언어학자들의 흥미있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2. 외국어 문법 습득의 자연 발생론

Brown(1973)은 영어가 모국어인 어린이들의 문법적 형태소나 기능어에 대한 습득 순서를 연구했다. 그의 연구가 심리언어학자들에게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학습자에게도 어떤 자연 발생적 외국어 문법의 습득 순서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갖게 했다. 예를 들어, Brown(1973)은 영어

의 진행형 [-ing]와 복수형 [-s]는 초기에 습득되는 문법적 형태소이고, 삼인칭 단수 현재형 [-s]와 소유격형 [-'s]는 비교적 늦게 습득되는 문법적 형태소라는 것을 발견 했다. de Villiers와 de Vilies(1973)의 형태소의 습득 순서의 관한 연구 보고가, Brown(1973)의 연구 결과와 거의 동

도표 1 형태소 습득 순서

Brown(1973)	deVilliers & deVilliers(1973)	Hakuta(1974)	Dulay & Burt(1974)
n=3	n=21	n=1	n=115
1 Pres. Prog.	2 Pres. Prog.	2 Pres. Prog.	1 Art.
2.5 on	2 Plural	2 Copula	2 Cop.
2.5 in	2 on	2 Aux	3 Prog.
4 Plural	4 in	4.5 in	4 Plural
5 Past Irreg.	5 Past Irreg.	4.5 to	5 Aux
6 Poss.	6 Arts.	6 Aux. Past.	6 Reg. Past
7 Uncontr. Cop.	7 Poss	7 on	7 Irreg. Past.
8 Arts.	8.5 3rd Pers. Irreg.	8 Poss.	8 Long Plural
9 Past Reg.	8.5 Contr. Cop.	9 Past Irreg.	9 Poss.
10 3rd Pers. Reg.	10.5 Past Reg.	10 Plural	10 3rd Pers.Sing.
11 3rd Pers.Irreg.	10.5 3rd Pers. Reg.	11 Arts.	
12 Uncontr.Aux.	12 Uncontr. Cop.	12 3rd Pers. Reg.	
13 Contr. Cop.	13 Contr. Cop.	13 Past Reg.	
14 Contr. Aux.	14 Uncontr. Aux.	14 Conna Aux.	
Bailey, et al.(1971)	Larsen-Freeman(1975)	Rosansky(1976)	
n=73	n=24	n=6	
1 Pres. Prog.	1 Pres. Prog.	1 Pres. Prog. ING	
2 Plural	2 Cop.	2 Short Plural	
3 Contr. Cop.	3 Art.	3 Pro. Case	
4 Art.	4 Aux.	4 Art.	
5 Past Irreg.	5 Short Plural	5 Cop.	
6 Poss.	6 Reg. Past	6 Aux	
7 Contr. Aux	7 Sing.	7 Poss.	
8 3rd Pers. Pres.	8 Past Irreg.	8 Past Irreg.	
	9 Long Plural	9 Long Plural	
	10 Poss.	10 Past Reg.	
		11 3rd Pers. Reg.	

일한 관계임을 확인 했다(도표 1 참조).

Hakutla(1974)의 연구에 의하면, 8살짜리 일본 어린이가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할때 영어 형태소의 습득 순서는 Brown(1973)의 연구 결과와 약간 달랐으나, 일반적으로 습득순서의 경향은 Brown과 동일한 것이었다(도표 1 참조). Dulay와 Burt(1974)는 스페인어와 중국어가 모국어인 두 집단의 어린이가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할 때, Brown(1973)의 연구 결과와 약간 다르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진행형과 복수형이 소유격형과 삼인칭 단수 현재형보다 먼저 습득한다는 점이 Brown의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Dulay과 Burt(1974)의 연구 결과를 Bailey, Madden과 Krashen(1974)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의 습득 순서는 Brown이나 Dulay와 Burt와 동일한 것은 아니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어 습득자들은 대략 같은 습득 순서로 영어를 배우고 있음을 발견했다. Larsen-Freeman(1975)과 Rosansky(1976)의 연구 결과, 어린이가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 할 때 문법적 형태소의 터득 순서는 이미 발견한 조사 결과와 연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여러 심리 언어학자의 조사 연구 결과 자연 발생적 외국어 형태소 습득 순서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 할 수 있다. 첫째, 외국어 습득자는 진행형과 복수형을 소유격형과 삼인칭 단수 현재형보다 먼저 습득 한다. 둘째, 의존 형태소를 독립 형태소보다 늦게 습득한다. 셋째, 사용 빈도가 높은 접사를 사용 빈도 수가 낮은 접사보다 먼저 습득한다. (예, 시제보다 복수형을 먼저 습득한다.) 넷째, 보편적인 형태소를 비보편적인 형태소보다 먼저 습득하다. (예, 과거시제보다 현재시제를 먼저 습득한다). 다섯째, 모국어의 어휘 범주의 조직으로부터 외국어 어휘 범주의 조직에 진이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습득 한다.

C. Chomsky(1969), Parrish(1978), Flahive(1978)와 Jeong(1984)의 연구에서, 어린이 통사 습득 순서의 연구 결과가 자연 발생적 외국어 형태소 습득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eager to see'구문은 'easy to see'보다 먼저 습득 된다. 그리고 Shane(1973)과 Hatch(1983)의 어린이의 음소 습득 순서의 연구 결과가 자연 발생적인 외국어 형태소 형성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어린이들은 /i, a, u/음소들을 /I, æ, o/음소들 보다 먼저 습득한다. 둘째, 폐쇄음 /p, t, k/를 마찰음 /f, v, θ, ð, s, z/보다 먼저 습득한다. 셋째, 파찰음 /č, j/를 어느 음보다 비교적 늦게 습득 한다. 넷째, /skr, spl, spr/같은

어두 혼성어음과/skr, kst, jd, kt, tr, sp/같은 어미 혼성어음을 제일 늦게 습득한다. 그러므로, 많은 심리언어학자들은 어린이들이 자연 발생적인 문법 형태소 습득 과정을 통해서, 모국어(영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외국어 습득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어를 습득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3. 언어 입력론

언어 입력론자들은 외국어 습득자가 외국어를 “어떻게” 습득하나의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언어 입력론자들은 자연 발생적인 외국어 문법 습득 순서론에서 어떻게 어린이가 쉬운 습득 단계로 부터 어떻게 차기고 차원의 습득 단계로 이동할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어린이가 어떻게 현재 습득 단계 (i)에서 다음 습득 단계 (i+1)로 발전하는 것일까? Krashen(1978)에 의하면, 현 습득 단계 (i)에서 차기 습득 단계 (i+1)로 이동하는 조건은 어린이가 (i+1)의 언어 입력을 이해해야 한다. 언어 입력의 ‘이해’는 언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언어 습득이란 습득자가 현재 약간 이해 할 수 없는 외국어 구조의 의미를 터득하는 단계로 전이되어 갈 때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 외국어 습득자가 고차원의 언어 습득 단계로 발전하도록 돕는 요인에는 주로 대화의 문맥, 습득자의 지식의 발전, 특수한 언어 정보, 습득의 경험, 인지의 발달 및 교육의 힘이 있겠다. 언어 입력론에서, 언어 습득자는 첫째, ‘의미’를 습득하고, 그 결과 언어 ‘구조’를 배운다고 가정한다(MaCnamara, 1972). 그러나 Hatch(1978)는 언어 ‘구조’를 먼저 습득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배운다고 주장하면서 언어 입력론에 반대하고 있다.

어쨌든, 언어 입력론에서, 학습자는 언어 습득을 위해 유용한 ‘i+1’ 단계에 있어야 한다. 만약 언어 습득자가 새로운 언어 입력 (I)을 받았다면, 그것을 언어 습득자가 청자(listener)로서 이해하여야 하고, 언어 습득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했다면, 언어 습득자의 현 ‘i’단계에서 다음 ‘i+1’ 단계로 습득이 완성된 것이다.

언어 입력론의 증거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Clark 과 Clark(1977)에 의하면, 부모가 어린이에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구사하므로써, 어린이와 부모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의 대화는 어린이의 현재 언어 능력에 알맞게 조정된 언어이다. 또한 부모와 어린이가 ‘여기(현재)와 지금(현재)’의 대화 원리를 활용하는 점에서 언어 입력론의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어린이가 부모와 대화할 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과 위치에 관심을 두고 항상 일치시키므로써 어린이가 그 대화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여기와 지금'의 대화 원리는 부모와 어린이 사이에 공동관 심사이며, 언어 습득의 촉진제가 된다.

Van Riper(1978)에 의하면, 부모는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게 어린이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냄새 맡은 것, 맛 본 것 그리고 행한 것을 부모가 말해줌으로써,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자기 대화과정'이라고 Van Riper는 말한다. 또한 그는 '평형 대화 방법'을 통해서 어린이가 언어를 투입 받아 습득된다고 보고 있다. 즉 부모가 생각하는 어른 중심의 대화가 아닌, 어린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 말해줌으로써, 그 어린이는 그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쉽게 현재 언어 습득단계에서 다음 언어 습득 단계(i+1)로 발전한다. 이 두 대화 방법은 어린이에게 언어 구사를 위한 감정이입(empathy)을 충분히 이용한 언어 학습이다.

또한 토박이 영어 교사가 영어를 교수 할 때 외국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느린 속도, 화술, 쉽, 흥내, 큰 소리, 몸짓, 음운 간소화, 구체적인 어휘 사용, 단문, 명령문, 첨가 의문문, 그리고 어휘 반복 기법등을 사용할때 효과적인 학습이 된다(Ferguson, 1975 ; Hatch, 1983 ; Long, 1980 ; Clark 과 Clark, 1977). 영어 교육자가 이런 기법을 이용한다면 효과적인 영어 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정서 여과론

외국어 학습의 정서 여과론은 정서적인 학습 변수와 외국어 습득과정의 상관 관계를 토대로 한 언어 습득 가설이다. Gardner와 Lambert(1959)의 외국어 학습자의 태도와 동기에 관한 연구 결과가 정서 여과론의 기본 가설이 되었다. 첫째, 학습자의 긍정적인 외국어 학습 태도가 외국어 습득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Spolsky, 1969). 둘째, 학습자의 대상 언어에 대한 신념은 외국어 습득에 큰 효과를 줄 것이다(Els, et al. 1984). 셋째, 학습자의 자기 확신과 바람직한 자기심상이 외국어 습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불안, 공포, 근심을 없애고, 안심, 편안한 상태에서 학습에 임하면 외국어 습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째, 외국어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처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외국어 학습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외국어를 말한다면 더욱 자연스런 외국어 화자가 될 것이다. 여섯째, 외국어 학습자가 대상 언어에 대

한 충격이나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면 학습에 지장을 줄 것이다(Schumann, 1978). 일품제, 외국어 학습자의 외향적인 성격은 외국어 회화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고, 내향적인 성격은 외국어 회화 학습에 지장을 줄 것이다.

Duly 와 Burt(1977)에 의하면, 학습자의 정서 여과기(affective filter)가 대상 언어를 받으면, 위에서 언급한 제반 정서적인 악 영향이나 조건등을 여과시켜서 언어 습득장치 속에 보낸다. 이런 정서여과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외국어를 습득하면 유창하게 대상어를 말할 수 있다. 정서 여과론이 외국어 학습에 주는 암시는 무엇일까? 학습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 입력을 제공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낮은 정서 여과 상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외국어 습득 및 학습 모형

1. 모국어 습득 모형

어린이는 최소한 세가지 요인 때문에 모국어 습득이 가능하다. 도표 2a에서, 어린이는 천부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신경 신체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갖고 태어난다. 따라서 어린이가 모국어 환경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 한다. 어린이들은 조직적인 교육없이도 지능에 상관없이 유아시절에 모국어의 음운조직과 기본적인 문장구조의 대부분을 습득하고, 약 8세경에 복잡한 문장구조와 음운 조직을 성인이 사용하는 수준에 도달 한다. 그리고 어린이는 성장함에 따라 인지가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언어가 발달한다. 그러므로 어린이 언어 습득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신경 신체적인 우수성, 인지적 우수성 및 모국어 환경을 노출하는데 있다.

신경 신체적인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어린이의 모국어와 외국어 습득은 인간만이 가진 유전적인 답습 현상 중에 하나이다. 인간의 생체 내에는 유전적인 언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가 태어나자마자, 언어에 대한 유전현상은 외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유전 현상은 외적 환경 요소와 쉽게 결합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현상은 언어의 유전 인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영어 혹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느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지배 받는다. 따라서 영어와 한국어의 환경에 살고 있으면 어린이는 이중언어를 말할 줄 안다. Monod(1972)는 생물만이 유전계획을 갖고 있고, 무생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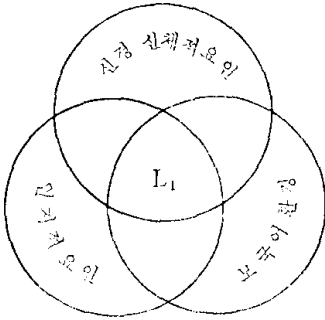
그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실에 의하면, 그 유전 계획은 주로 유전 인자(genes)에 의해 결정되고 그 유전 인자는 염색체(chromosomes)에 따라서 배열된다. 동물과 식물은 각 유전 인자의 두 복사 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씩 그 유전 인자를 물려준다고 알려져 있다. 유전 인자의 복사 인자(짝 인자)는 염색체에서 이루어지고, 각 세포는 감수분열(meiosis)에 의해 나누어 진다. 각 후손은 모체로부터 하나의 인자와 부체로부터 다른 하나의 인자를 받아 두개의 인자를 소유하며, 그 두 유전 인자는 DNA (deoxybonuclei acid)와 RNA (ribonucleic acid)로 구성 되어 있다.

과연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점을 어떻게 구별 할 수 있을까? 인간과 원숭이의 차이점은 다만, 인간이란 언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유전 인자를 갖고 있고 원숭이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사실, 생물학자들은 다양한 속속의 특성을 답습시키는 생체 기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어떻게 그 속성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인간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특성은 Darwin 이 주장하는 진화론(Evolution theory)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Mendel 이 주장하는 돌연변이(Mutation)에 의해서 인간의 언어가 형성된 후 답습되고 있는 것일까? 인간언어에 대한 생습권은 진화론과 유전분자학에 깊숙히 관계된 것은 사실이다. 생물학적 견지에서 보면 인간의 지능에 관계없이 인간은 언어를 답습한다. 연구자는 그 것을 언어학적 유전인자(linguistic genes)라고 보고 있다. 달변이나 누변이나 하는 인간의 언어수행은 외적인 환경 요소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고 있다. 인지론자들은 인지적인 발달이 없다면, 어린이의 언어발달은 일정한 수준에서 정지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린이가 고등 언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지의 발달이 필요한 언어 습득 요인 중에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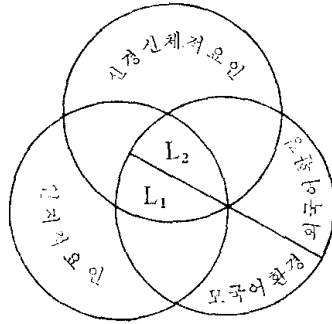
Owens(1984)는 언어 습득에는 천부적인 재능에 관계없이 어린이가 사회 환경 내에서 상호 인간 작용이 성취됨으로써 언어 터득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럼 어린이들은 단순히 어른의 언어를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터득하는 것인가?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어른의 문장을 모방하나, 그 어린이들이 모방 할 때에는 문장을 재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른의 문장이 길다면 짧게 모방하며,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이라면 단순하게 모방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적인 노출은 어린이 언어 습득에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다.

도표 2 언어 습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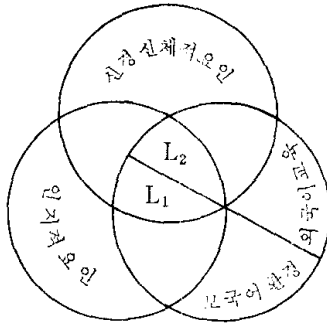
a. 모국어 습득 모형



b. 외국어 습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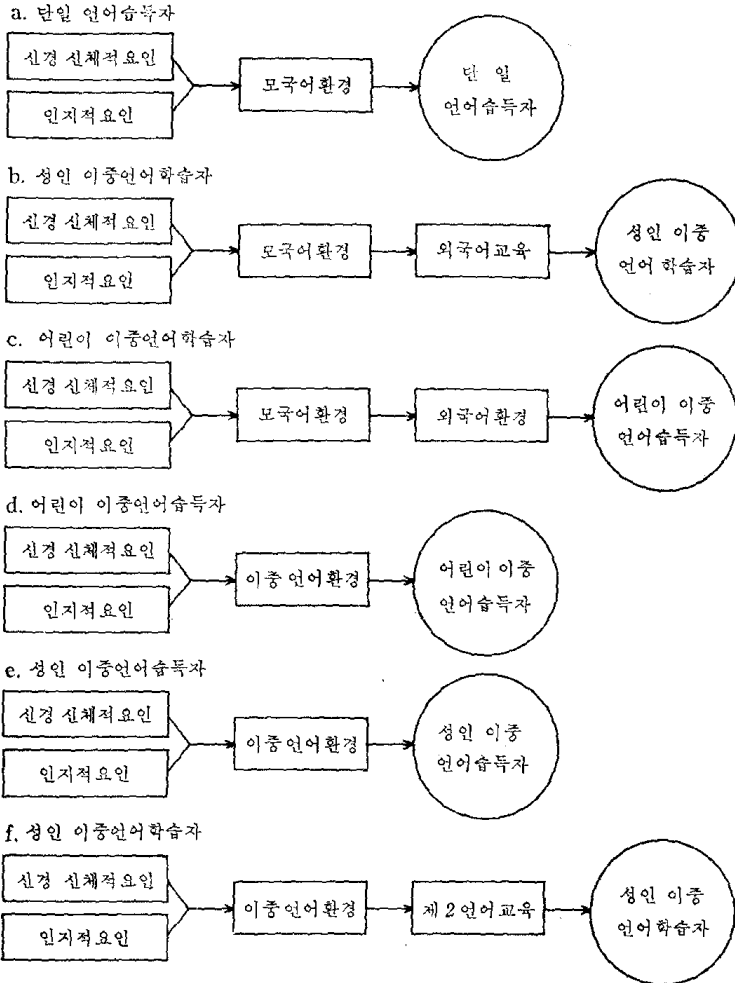
c. 외국어 학습 모형



2. 외국어 습득 및 학습 모형

어린이와 성인의 외국어 습득 및 학습은 모국어 습득과 달리 두가지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외국어 '습득'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어 '학습' 모형이다. 인간은 외국어를 이런 두가지 과정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다. 도표 2b처럼, 외국어 '습득'인 경우에, 신경 신체적 언어 습득 요인과 인지적 언어 습득 요인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모국어 환경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모국어 습득자 (L1)가 되고 동시에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되면, 이중 언어자(L2)가 될 수 있다. 도표 2c처럼, 외국어 '학습'인 경우에 신경신체적 언어 습득 요인과 인지적 언어 습득 요인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모국어 환경에서 조직적인 외국어 훈련과정을 통해서 이중언

도표 3 언어 습득자 및 학습자의 유형



어자(L2)가 될 수 있다.

언어 습득자 및 학습자는 대강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도표 3 참조). 첫째, 도표 3a처럼, 신경 신체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갖고 태어난 ‘어린이’가 모국어 환경에 노출되면, ‘단일 언어 습득자’가 된 유형이 있다. 둘째, 도표 3b처럼, 신경 신체적 언어 습득 요인과 인지적 언어 습득 요인을 갖춘 ‘성인’이 모국어 환경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은 후, ‘성인 이중 언어 학습자’가 된 유형이다. 셋째, 도표 3c처럼, 신경신체적 언어 습득 요인과 인지적 언어 습득 요인을 갖고 태어난 ‘어린이’가 모국어 환경에서 외국어 교육을 조직적으로 받은 후 ‘어린이 이중언어 학습자’가 된 유형이다. 넷째, 도표 3d처럼, 신경신체적 우수성과 인지적 사고를 갖고 태어난 ‘어린이’가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되면, 조직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받지 않고도 ‘어린이 이중언어 습득자’가 된 유형이다. 다섯째, 도표 3e처럼, 신경 신체적 언어 습득 요인과 인지적 사고를 가진 ‘성인’이 이중 언어 환경에 살면서 조직적인 외국어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성인 이중언어 습득자’가 된 유형이다. 여섯째, 도표 3f처럼 신경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언어 습득을 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춘 ‘성인’이 이중언어 환경에 살면서 외국어 교육을 철저히 받은 후, ‘성인이중 학습자’가 된 유형이다.

위와 같이 여섯 유형의 언어 습득자와 학습자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첫째, 학습자나 습득자들은 많은 언어 자료를 통해서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경험을 통해 언어 숙달자가 된다. 둘째, 그들 모두가 언어를 의사소통 도구로써 배우고자하는 강한 동기에 의해서 대상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터득한다. 셋째, 어린이들에게는 소위 Chomsky가 말하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나 학습이 성인보다 쉽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내재적 학습 과정을 통해서 외국어를 터득 할까? Selinker(1972)는 중간언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한다고 한다. 학습자가 외국어를 구사할때 모국어의 영향 때문에 완전히 대상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학습 과정을 겪게 된다. Selinker는 이런 학습 과정을 중간언어과정이라고 한다(도표 4 참조). 도표 4의 A 부분처럼, 학습자의 중간언어 상태가 모국어에 가까운 예를 발견 할 수 있다. 도표 4의 B 부분처럼, 학습자의 중간언어 상태가 모국어도 외국어도 아닌 예를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도표 4의 C 부분처럼, 중간언어 상태가 대상언어에 가깝게 숙달된 학습자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도표 4 중간 언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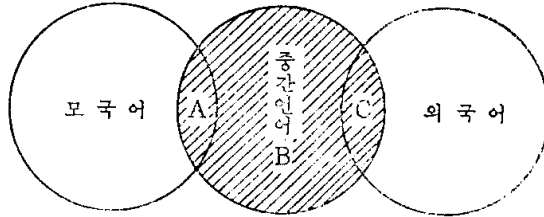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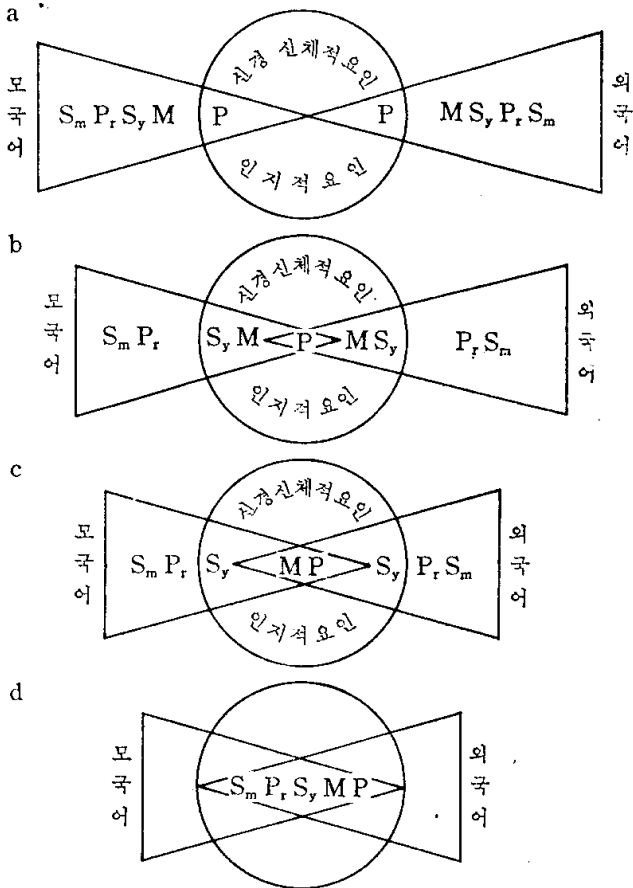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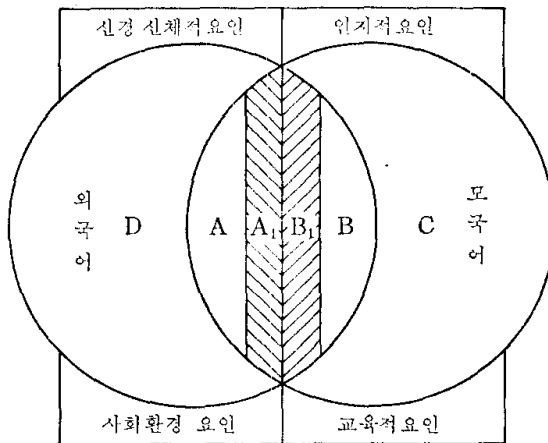


도표 5 모국어와 외국어 접촉



외국어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내재적 학습 과정을 통해서 대상 외국어를 터득한다. 도표 5a에서, 학습자는 신경신체적 우수성과 인지적 언어 습득 요인 때문에 외국어를 터득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갖는다. 초기 외국어 학습 단계에서 학습자는 이미 외국어의 P(음운지식), M(형태지식), Sy(통사지식), Pr(화용론적 지식)과 Sm(의미론적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의 모국어 지식이 외국어와 접촉하게 된다. 도표 5b에서, 외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음운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학습 과정에서 모국어의 음운지식이 외국어의 음운 학습에 영향을 준다. 도표 5c에서, 외국어 학습자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서로 다른 음운 및 형태 정보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모국어의 음운 및 형태 지식이 외국어 음운 및 형태 지식에 관한 학습 과정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학습자는 두 언어 조직의 상호 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도표 5d에서, 외국어 학습자는 두 개의 상이한 언어 조직을 상호, 대조 분석하고, 새 언어 조직에 익숙해 가면서 이중언어를 구사할 준비를 갖춘다. 학습자가 외국어를 접하는 초기 단계에는 모국어의 방해작용과 모국어와 외국어의 상호 동화 작용을 거쳐 그의 외국어 실력을 독립적인 위치로 발전해 간다. 도표 6에서, A₁과 B₁ 지역은 모국어와 외국어 음운조직의 상호작용이 일어난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전이가 발생된 곳이다. 학습자는 B₁ 지역에서 A₁ 지역 보다 더 방해 작용을 겪는다. B지역의 학습자는 외국어의 음운규칙, 형태규칙, 문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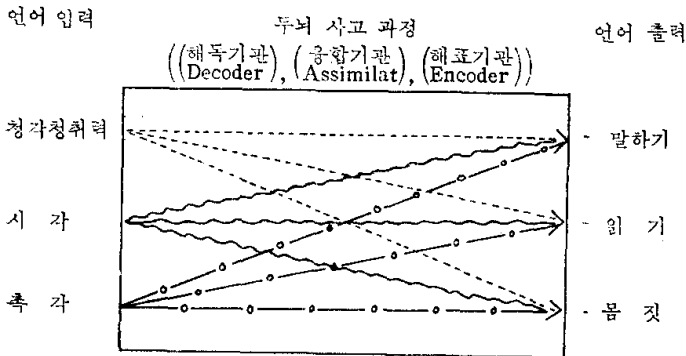
도표 6 외국어와 모국어의 상호작용



조 규칙에 익숙하지만, 모국어의 장애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A지역은 모국어의 장애 현상에서 벗어난 학습자의 상태를 나타낸다. C지역은 모국어의 영향에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조건을 나타낸다. D지역은 학습자가 토박이 화자와 똑같은 언어 능력을 갖는 조건을 나타낸다. 이런 모든 학습자의 학습과정은 신경 신체적 및 인지적 언어습득 요인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환경과 교육적 요인이 외국어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 주고 있다. 외국어 학습이란 외국어의 언어학적 규칙체계를 터득하여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만약 학습자가 모국어 환경에 있다면, 외국어 학습은 주로 조직적인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Paulston 과 Bruner(1974)에 의하면, 교사가 외국어 교육자료를 학습자에게 제시하면, 학습자는 우선 이해과정을 신경 및 신체 조직을 통해서 두뇌에서 이룩한다. 그리고 유의적인 연습과정과 사고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활동을 하면 외국어 학습이 성취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경 언어학자들은 내재적 학습과정이란 인간 두뇌의 신경 조직의 언어 사고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표 7은 외국어 입력을 받은 외국어 학습자가 어떻게 두뇌 사고 과정을 통해 외국어를 형성하여 언어로써 출력시키느냐 하는 것을 도표화한 것이다. 도표상에 나타난 것 같이, 학습자가 대상 언어의 음성을 들으면, 두뇌의 해독기관(decoder)은 신경자극을 언어로 해독시키거나 변화시켜, 그 변화된 대상 언어의 음성을 두뇌의 융합기관(assimilator)이 받아서 두뇌내에 저장하거나, 즉시 두뇌의 해표기관(encoder)로 보내면, 그 해표기관(encoder)은 음성 언어로써 표현하거나,

도표 7 언어 입력과 출력



몸짓으로 나타내거나 한다. 또한 시각과 촉각도 두뇌 사고 과정에 청각과 같은 언어 입력 효과를 주고 있다. 시각은 읽기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고 촉각은 몸짓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시각은 말하기와 몸짓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도록 두뇌 사고를 자극한다. 촉각도 말하기와 읽기에 도움을 주도록 인간 두뇌의 사고를 자극한다. 직접 촉각을 통해서 몸짓을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너무 차거나 뜨거운 것을 대하면 싫은 얼굴 표정을 보인다. 동시에 “뜨거워” 혹은 “hot”라고 음성 언어로 표현한다. 이런 두뇌 사고 활동이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거나 구사 할 수 있게 하는 두뇌의 내재화 활동을 뜻한다. 이런 두뇌 내재화 활동을 통해서 언어를 터득한다.

IV. 결 론

인간은 언어를 습득 할 수 있는 선천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중언어 환경에 살고 있다면, 이중언어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단일언어 환경에서 태어나도 교육의 힘에 의해 두개 이상의 언어를 터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러 응용언어학자들의 외국어 습득과 학습 이론을 고찰해 보았다.

첫째, Krashen(1978)은 외국어 습득론과 학습론의 차이점을 구별 하고 있다. 외국어 학습이란 의식적인 지식 습달 과정이고, 습득이란 잠재적인 언어 터득 과정이며 의사 소통을 위한 언어 사용 과정이다. 외국어 학습 이론은 모국어 환경에서 외국어를 습달하는 진행 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외국어 습득론은 이중 언어 환경에서 외국어를 터득하는 과정을 특성화 한 것이다.

둘째, 심리언어학자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학습자에게도 어떤 자연 발생적인 외국어 문법의 습득 순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어 습득자는 진행형과 복수형을 소유격형과 삼인칭 단수 현재형 보다 먼저 습득한다.

셋째, 언어 입력론 지지론자들은 외국어 습득이란 현재의 언어 습득 수준(i)에서 다음 수준(i+1)으로 전이되어 갈 때 외국어 습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자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

넷째, 외국어 학습의 정서 여과론은 정서적인 학습 변수와 외국어 수행과의 상관 관계를 토대로 한 가설이다. 즉, 학습자의 긍정적인 외국어 학

습 태도와 동기가 외국어 습득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언어 습득자 및 학습자를 여섯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그 유형들을 보면, 단일 언어 습득자, 성인 이중 언어 학습자, 어린이 이중 언어 학습자, 성인 이중 언어 습득자 및 성인 이중 언어 학습자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자는 외국어 습득 및 학습모형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다고 보고 있다. 인간의 언어 습득 및 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천부적인 생물적인 우수성과 인지의 발달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나 성인의 외국어 습득의 요인은 외국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연 발달적 외국어 오류들을 경험함으로써 대상언어를 자연히 터득한다. 모국어 환경에서 외국어 '학습'은 조직적인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본 연구자는 외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조직적인 외국어 학습을 받은 후, 학습자는 소위 토박이 언어 습득자와 같은 언어 능력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어 학습 초기에 모든 학습자는 모국어의 음운 조직, 통사조직, 형태조직에 장애를 받고, 외국어 학습이 고등수준에 도달했을 지라도 성인 학습자는 모국어 음성 및 음운 조직에 항상 방해 받는다.

참 고 문 헌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Brown, R., Cazden, C. and Bellugi, U. 1973. The child's grammar from I to III. In C. Ferguson and D. Slobin (Eds.). *Studies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295-333.
- Chomsky, C. 1969.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children 5 to 10*. Cambridge, Mass.: MIT Press.
- Clark, H. and Clark, E.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 Dulay, H. and Burt, M. 1974. Natural sequeneeces in child seco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4, 37-53.
- Els, T., et al. 1984. *Applied linguistics and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Baltimore, M.D.: Edward Arold.
- Gardner, R.S. and Iambert, W. 1959. Motivational variabl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 of Psychology*. 13. 266-272.

- Hakuta, K. 1974. A preliminary report of the development of grammatical morphemes in a Japanese girl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3. 18-43.
- Hatch, E. M. 1983. *Psycholinguistics: a second language perspective*. Rowley, Mass.: Newbury House.
- Jeong, D. B. 1984. The linguistic ability of bilingual Korean children *J. of College of Foreign Language of Chung Ang Univ.* 3, 19-30
- Krashen, S. 1978. Individual variation in the use of the monitor. In W. Ritchie (Ed.), *Principles of second language learning*. N.Y.: Academic Press.
- Long, M. 1980. *Input, interac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Doctoral dissertation, UCLA.
- Paulston, C. B. and Bruder, M. N. 1974. *From substitution to substance: a handbook of structural pails*. Rowley, Mass.: Newbury House.
- Rosansky, E. 1979. *Methods and morphem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child language research forum. Stanford Univ.
- Schumann, J. 1978. The acculturation model for second-language acquisition. In R. Gingras (Ed.), *Second-language acquisition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Arlington, Virginia: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RAL* 10. 290-231.
- Van Riper, C. 1978. *Speech correction*. N.J.: Prentice-Hall.

<Abstract>

A study of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and learning model

Dong-Bin Jeong
(Chung-Ang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ory in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and learning.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acquisition-learning hypothesis, the natural order hypothesis, the input hypothesis, and 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 in order to discover the nature of children's language acquisition and learning. The present study also examined six types of language acquisition and learning, and models of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learning and use.

Krashen(1978) claims that adults have two distinct ways of developing competence in foreign languages. Language acquisition is the natural way to develop linguistic ability, and is a subconscious process. Language learning is 'knowing about' language, or 'formal knowledge' of a language. Learning is a conscious process, which requires explicit knowledge of rules.

The natural order hypothesis states that grammatical morphemes and structures are acquired in predictable order, not necessarily are learned at random. Brown(1973) states that certain morphemes and structures tend to be acquired early and to be acquired late, The progressive tense marker, '-ing' and the plural, '-s' are usually among the first morphemes acquired by children. Typically late acquired are the third person singular morpheme, '-s' and the '-s' possessive marker.

The input hypothesis states that children and adults acquire first or

second language by understanding input that a little beyond their current level of acquired competence in a language, An acquirer can move from stage 'i' (where 'i' is the acquirer's current level of competence) to a stage 'i+1' (where 'i+1' is the immediately following 'i' along some natural order) by comprehending language containing 'i+1.'

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 states that emotional and attitudinal variables relate directly to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An acquirer with optimal, low filters is more open to the input of language.

There are six types of language acquisition and learning such as (a) a single language acquirer in a native language environment, (b) an adult bilingual from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a native language environment, (c) a child bilingual learner from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a native language-environment, (d) a child bilingual acquirer in a bilingual environment, (e) an adult bilingual acquirer in a bilingual environment, and (f) an adult bilingual learner from second language education in a bilingual environment.

Many models of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learning and use have been discussed in the present study such as Selinker's (1972) interlanguage model. Initial contact between mother tongue and a foreign language is at their most superficial level, which is phonetic, and then their contacts gradually occur at the morphological, syntactic, pragmatic, and semantic levels. Each human brain has a decoder, an assimilator, and an encoder. When children and adults acquire their first or foreign language, they use their brain function.